

해남군, 60세 이상 모든 주민 대상 치매선별검사 실시

2025년까지 대상자에 대한 검사 완료 계획 치매 예방 및 조기발견·관리 서비스 강화

해남군이 관내 60세 이상 모든 주민이 치매선별검사를 목표로 치매 종합관리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전수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해남군의 60세 이상 주민은 2만 7,931명으로 군은 매년 1만여명씩 치매선별검사를 실시, 2025년까지 전체 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만여명에 대한 치매선별검사가 이뤄졌고, 올해도 현재까지 4,000여명이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했다.

군은 치매의 경우 조기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주민은 연중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등 31개 보건 의료기관에서 상시 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인지 저하 및 의심자는 신경과 전문의 무료진단검사와 상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군은 치매선별검사를 위해 보건기관을 찾아가 번거롭다는 점을 감안해

찾아가는 치매 검진을 확대하고 있다. 14개 읍면 경로당을 비롯해 노인시설, 복지시설, 지역상가까지 살살히 훑으며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연계해 보건소를 찾아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맞춤형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치매 선별검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여겨 60세가 되면 자발적 치매검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치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조기검진과 적절한 약물치료가 병행된다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치매관리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치매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행복한 노년을 즐길 수 있는



해남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치매 조기검진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남군 치매안심센터(☎061-531-3703)

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진도군, 2024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 무의도서 확대 운영

의료취약마을 주민 대상...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위해

진도군이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인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를 무의도서 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의료취약지 61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진들이 각 마을을 방문해 물리치

료 서비스와 의료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는 의료서비스 격차에서 오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도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취약지인 무의도서 11개소를 확대 운영한다.

진도=조상용 기자



구례군, 상반기 마을활동가 간담회 개최

구례군은 지난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상반기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 활동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한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 17명, 관련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는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이다. 마을활동가는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각종 행정 및 복지서비스 신청 접수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마을활동가는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마을 자원을 연계, 각종 고지서 납부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도 한다.

구례=박진호 기자

광주 광산구, 민간 협업 이동노동자 휴게 쉼터 확대

커피숍, 편의점 등 32곳 추가 총 53개소 운영...맞춤 안전교육 추진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고용노동부의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도한 민간형 이동노동자 휴게 쉼터를 올해 다양한 시설로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산구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달고나(달리다 고단하면 나에게로 와)’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 커피숍 21개소를 이동노동자 휴게 쉼터로 지정,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사업 효과와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산구는 올해 커피숍과 더불어 편의점으로 쉼터를 확대한다.

임형택 기자

